

KEYWORD

로 보는 고양

고양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과감한 시정 혁신과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달려온 고양특례시.
 지금도 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씩씩이 달려가고 있다.
 미래도시 희망을 열어 갈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주요 시정 변화를 키워드로 살펴본다.

경제자유구역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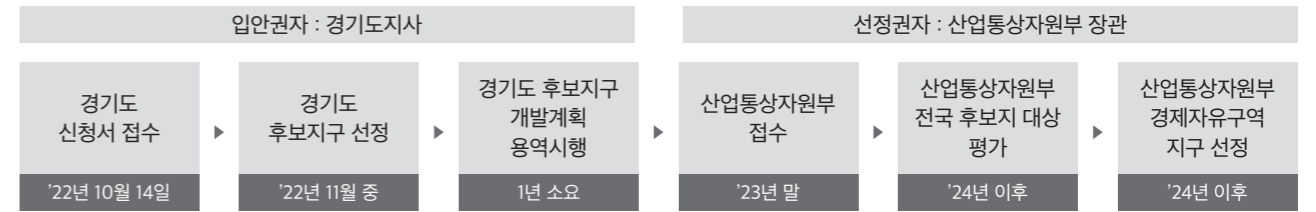
고양특례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지난 11월 선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연구용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으로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용역 대상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가

지정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평가는 1차 현장심사와 2차 서류심사로 이뤄졌다.

고양특례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구 선정 절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각종 규제에 막혀 기업이나 대학 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고양특례시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또,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다른 사업들이 후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선제조건이기도 하다.

고양특례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여러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또, 최종 선정을 위한 추진 전략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해외 선진 국가 벤치마킹에도 나섰다. 지난 11월에는 이스라엘 혁신청 및 UAE 두바이 공항 프리존·마스다르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시찰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했다.

